

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

기타큐슈시



[상황(배경, 목적 등)]

기타큐슈시의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있는 우오마치 상점가는 예로부터 지역의 중심으로서 번영해 왔다. 그러나 기타큐슈시의 인구 감소, 교외 대형점 진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점가의 통행량과 매출액 감소, 빈 점포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. 거리를 찾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.

[내용(사업 개요 등)]

중심 시가지 활력의 거점으로서 공원과 문화시설을 정비하고 그 시설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의 대규모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최 및 유치하고 있다.
또한 행정 주도뿐만 아니라 상점가 스스로 부동산 소유자와 연계해 빈 점포를 재생시키는 동시에 공도에서 야시장을 개최해 새로운 고객층인 젊은이를 불러들이고 있다.
또한 기타큐슈시가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SDGs 모델도시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LED 활용 등 친환경적인 상점가로 정비하고 있다.

[효과(특징, 선진성, 향후 전개 등)]

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집객 수는 연간 400만 명을 넘어 젊은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상점가를 방문해 통행량이 회복되고 있다. 앞으로 축구 경기장을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하는 등 일본 국내와 국외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.